

■ 실속 재테크

공모주 청약

# 대형주 붓물... 직접 투자 노력볼만

### 이달에만 9개 기업 대기... 난방공사 등 공기업도 '관심'

이달부터 진로, 동양생명 등 대어급 공모주들이 잇따라 청약에 나서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증거금 환불기간이 짧아져 청약 기회가 늘어나면서 직접 청약에 나서기도 편리해졌다. 전문가들은 청약 기업의 공모가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해 직접 청약에 나서거나 공모주권으로 간접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공모주시장 달아오른다=하반기 공모주시장의 하이라이트는 6년여만에 증시로 컴백하는 진로와 '생명보험사 상장 1호'가 될 동양생명이다. 하반기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진로는 오는 20~22일 청약을 거쳐 30일 거래소에 상장된다. 2003년 상장 폐지 이후 6년여만이다. 공모가는 5만~6만원 정도로 공모 규모는 7천700억~8천600억원 정도에 예상되고 있다.

동양생명은 오는 29~30일 이틀간 청약을 받아 10월 초 상장한다. 동양생명의 공모 물량도 3천400억~4천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 공모가는 2만원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음달 20~22일 청약을 받아 10월 말 상장에 나선다. 공모 규모는 1천억~1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건설, SK C&C 등 메이저급 종목도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청약 및 상장을 준비중이다.

▷환불 앞당겨져 청약기회 늘어=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있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공모 기업마다 청약을 받아 상장 절차를 책임지는 주관사(증권사)가 서로 다른데 단독으로 청약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함께 청약받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개 물량을 많이 배정받은 해당 주관사의 계좌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주 투자자 빈번한 개인의 경우 각 증권사에 계좌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

청약 증거금은 50%여서 공모가가 주당 1만원인 공모주 2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억원을 넣으면 된다. 청약경쟁률에 따라 최대 2만주가 배정됐을 경우 납입일에 나머지 금액인 1억원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 배정 주식이 1만주 미만인 경우엔 청약증거금에 배정금액을 뺀 금액이 환불일에 청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에는 청약이 잇따르는 데다 환불일마저

#### 9월 공모주 청약 기업

일정	종목	환불일	주관사
15~16일	모리노	9월 18일	우리/현대
16~17일	*쌍용머티리얼	9월 21일	대우
17~18일	케이엔디블유	9월 22일	키움
17~18일	*에리트베이지	9월 21일	신한금융투자
20~22일	*진로	9월 24일	삼성
23~24일	아이엔씨테크놀로지	9월 28일	미래에셋
24~25일	네오위즈텍스	9월 29일	우리
29~30일	*동양생명보험	10월 6일	대우
29~30일	한스바이오메드	10월 5일	한국

\*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료: 금융원 전자공시시스템)

앞당겨져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이 한결 유리해졌다. 청약 마감 후 증거금을 돌려받는 데 1주일 가까이 걸리던 것이 요즘은 2~3일(거래일 기준)로 앞당겨져 투자자들의 청약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16일 청약 마감하는 모리노에 신청했다가 남은 자금을 18일 환불받아 같은 날 청약하는 케이엔디블유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증시 활황과 저금리 기조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데다 청약자격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중소 전용 ABS 920억원 발행

(자산유동화증권)

### 업체당 평균 24억 지원... 지방 중기 자금난 숨통

중소기업청은 9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ABS는 참여업체의 회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BW)를 자산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것이다.

이번 ABS 발행은 기술성과 성장성은 높지만,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39개 중소기업의 회사채 중 선순위·중순위채권 718억원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채권 202억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920억원의 발행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에 평균 23억6천만원씩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ABS 발행 참여업체의 약 60%가 지방 중소기업으로 지방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 미래성장 가치가 높은 기술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오는 12월말 900억원 내외의 ABS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C&중 소액주주들

### 국가상대 배상 청구

C&중공업의 소액주주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낸 한국허치슨터미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C&중공업 소액주주 83명은 최근 "한국허치슨터미널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돼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한국허치슨터미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식 거래 정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으며, 파산제도의 허점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중공업의 채권 회사 중 한 곳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지난 2월 "C&중공업의 총 부채가 총자산을 넘어서 채무초과 상태"라며 광주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중부세 비과세 신청접수

### 국세청 30일까지

국세청은 16~30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중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학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달한다.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중부세 부과를 위한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납세자들은 오는 12월1~15일 2009년분 중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연합뉴스



## 光銀 모범납세자에 금리 우대

### 광주국세청과 협약

광주은행과 광주지방국세청은 15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 대한 대출을 최고 0.5%포인트 범위에서 우대하고 예금은 종류에 따라 최고 0.2%포

인트 범위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우대 기간은 모범 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신규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 광주은행은 모범 납세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타 은행 이체 수수료를 우대기간에 한도에 제한 없이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유망 중소기업 선정시 최고 10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 아파트 거래 올들어 최고

### 8월 한달 2,910건 전남은 소폭 감소

지난 달 신고된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가 올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가 15일 공개한 8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달 거래 신고건수는 모두 2천910건으로, 7월(2천794건)보다 116건(4.1%)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거래량은 지난 2006년 11월 3571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올들어 최고치다.

광주에서는 신축기와 이사철을 맞아 3월 거래 신고건수가 2천588건을 기록한 뒤 비수기인 ▲4월(2천404건) ▲5월(2천317건) ▲6월(1천968

건)에는 다소 감소했다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계는 중·소형을 찾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각종 경기 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은 그러나 지난 7월(1천295건)보다 소폭 감소한 1천203건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한편,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총 5만455건으로, 지난 7월의 4만5천470건보다 10% 가량 증가했다. 이 물량은 올해 1월 1만8천74건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올들어 신고건수가 5만건이 넘는 것은 8월이 처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T: 매우 잘 들립니다. C: 못 들으니까... C: 못 들으니까... C: 못 들으니까...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수원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충청점: 062-227-9970  
익산점: 063-851-2422

**비데프리카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상차에 다른 비데 전자기기가 전하는 실속 있는 오토 선풍.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KA3100L  
290,000원  
219,000원 (실구매 가격)

노비타비데전통점 **비데프라자** | 062-515-1144

**휴대폰으로 CCTV**

명화에만 부포님 알아주세요?  
매일 얼굴보며 문안인사 하도하세요!

**SHOW Care**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파격가 판매!

385-2600